



RaonAtti 9th

SiemReap team, June





목차

- ★ 소개 (오피스 직원)
- ★ 6월 활동
- ★ 7월 계획
- ★ 에세이

식구소개 (Office)



분탄 매니저님

박시호 간사님

김예슬 간사님

파리 간사님

권용수 간사님

김혜경 원장님

변용수 부원장님

최윤정 대리님

고세인 주임님

리비다 간사님

펄라 간사님





6월 활동

Ngo 2부킹스쿨

Big Light Youth NGO (큰빛NGO)



처음 큰빛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은 NGO에 소속된 아이들의 사진을 찍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NGO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 방문하고 싶었으나 정보가 너무 없었다. 그러던 중,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큰빛NGO 봉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큰빛NGO는 한국 NGO가 아닌 캄보디아 Local ngo로서 주된 사업은 교육이다. 단순히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리더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씨엠립 교육청과 MOU 맺은 NGO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초, 중, 고, 대학교에 한국어, 컴퓨터, 영어 교사들을 지원하여 씨엠립 교육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만나 본 석미자 부원장님께서도 씨엠립에 있는 Build Bright University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셨다. 그 곳의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Ngo 큰빛스쿨

*운영자금

큰빛NGO에서 가장 우려하는 일은 돈으로 인해 애초 계획한 큰빛NGO만의 순수성을 잃는 일이라 하셨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ngo운영에 있어 기업 기부금은 일절 받지 않으시고 가까운 지인에게만 그것도 일정액 만큼만 받으신다고 하셨다. 거의 자비량으로 센터를 운영하시고 가족들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신다.

또한 대표님, 부대표님, 한국인 봉사자분들이 주변 학교에 강의를 나가셔서 받는 수입도 운영 자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구성원

현재는 현지인 24명 정도와 한국인 봉사자 3분이 계시다고 한다. 이 현지인들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학생들이다. 큰빛의 목표가 캄보디아의 젊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와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장차 이 스텝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리더로 키울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큰빛의 목표이다. 이들은 센터에서 대표님, 부대표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Ngo 투어링스쿨



큰빛NGO와 경인여자대학교가 함께 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BBU와 씨엠립 교육대학교에서 있었다. 우리들도 초대를 받아 그 곳을 방문하였다.

씨엠립에 있는 수많은 NGO 중 큰빛NGO에 방문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던 것들이 너무나 크다. 우리가 몸 담고 있던 다일과는 다른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신선했고, 어떤 NGO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Ngo 투어빙스쿨

Cafe PukaPuka & Angkor cookies



일본 NGO라고 알고 간 카페 뿌카뿌카는 알고 보니 일반회사였다. 그래도 그 설립목적이 NGO의 성격과 많이 닮아있다고 판단되었고 평소 궁금하던 기관이기 때문에 방문하였다. 앙코르쿠키에서는 현지 직원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각종 기념품을 판매한다. 멀리 않은 곳에 현지 직원 44명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공장은 위생 상의 문제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현지 스텝의 도움을 받아 바깥에서 공장 내부를 견학할 수 있었다. 앙코르 쿠키는 그 제조과정부터 포장과정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앙코르쿠키의 팀장님께 질문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 메일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봉사자 가이드 라인 제시



단기봉사자들이 우리 센터에서 봉사활동 전 숙지하게 할 봉사자 가이드 라인을 제작 중에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현지 아이들, 현지인들이 받게 되는 일련의 상처를 최소화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서는 안될 행동에 대한 목록을 명시하여 단순히 나열하려는 초기계획과는 달리, 주요 메시지를 함축한 동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동영상의 컨셉은 '불편함'이며 일부 봉사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좋지 않은 행동을 아띠들이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렇게 불편한 행동들을 잠시 후 당신 또한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백일장 준비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보다 많은 책을 읽히기 위해 시작된 백일장 행사.

아띠 9기들도 7월 10일에 진행될 프놈프라움 제2회백일장을 위해 몇 일을 준비 하였다.

백일장을 진행하기 위해 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크마에 스텝들과 1차회의(책선정, 심사기준, 홍보방법, 1차백일장 피드백)
2. 다일의 지원에 따라 백일장 위한 도서 구입(어린왕자 외 4권)
3. 프놈프라움, 줌크니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협조요청
4. 마을 곳곳에 백일장 홍보물 부착, 신청시작
5. 1기백일장에서 객관적인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피드백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심사 장치 마련
 -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심사가 아닌 객관적 지표에 의해 점수를 매겨 점수에 따라 등수를 가릴 예정(4명의 심사위원의 점수의 평균을 낼 계획이다.)
 - 출신학교와 이름, 나이, 학년을 가린 블라인드 심사를 할 예정

visa trip (vietnam, Ho chi minh)



Visa 기간이 만료될 시기가 가까워져서 이웃나라인 베트남으로 비자여행을 다녀왔다.
육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씨엠립에서 프놈펜까지 약 7시간, 프놈펜에서 호치민까지 약 7시간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었다.

신체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나이트버스를 타고 장거리 이동도 해보고, 센터와 팀에서 탈출해 개인
적인 시간을 가지고,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visa trip (vietnam, Ho chi minh)



프놈펜 KB국민은행 방문

호치민에 가기 전 경유하게 되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있는 KB국민은행을 방문하였다. 은행 법인장님과 직원 분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프놈펜에 있는 킬링 필드에 방문하고자 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차를 내어주셨다. 킬링필드를 보고 돌아와서는 점심식사도 함께 하였다. 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찾아 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7월 계획

Home stay

마을탐방의 대안으로 하게 된 홈스테이.
이 곳 프놈끄라움 마을 안을 더 깊숙히 느끼기 위해 각자가 관계 맺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집에서 따뜻한 하루하루들을 지낼 예정이다.

인준 단원은 7월 10일부터 홈스테이를 시작했고 그 외 단원들은 몇 일 후 홈스테이를 시작할 예정.

시엠립 시내와 에어컨이 있는 숙소 그리고 팀에게서 탈출해 실제 현지 생활을 느낄 수 있는 프놈끄라움 마을의 판자집에서 남자 단원들은 2주일, 여자 단원들은 1주일을 지내게 된다.

백일장

일시 : 7월 10일 수요일 4시 30분
장소 : KB 국민은행 다일 도서관 1층





에이시이

김재민



교수님과 전공서적을 통해 지식을 배워가는 것도 좋고
책을 주룩주룩 읽어가며, 저자만의 경험을 배워가는 것도 좋고
이것저것에 대해 혼자 고뇌하고 생각하며 깨우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크고 즐거운 배움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둥키며 배울 수 있는 여러 것들, 이라는걸
느낀 지난 5개월이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나의 지난 5개월이 행복의 연속이었다고, 지난 5개월을 아주 행복하
게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타인으로 인해 힘든 점도 많았고,
반대로 나 또한 타인을 힘들게 했던 적도 많았을 거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일말의 감정을 느끼고
소중한 가르침을 하나씩 얻어 왔던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나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절대 값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라온아띠가 아닌이상 절대로 경험할 수 없
는, 도저히 말로써는 표현 못할 소중한 느낌과 배움을 얻어간다.

근데 이상한게,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즐거웠던건 정말이지 진심인데도
또다시 사람들과 그렇게 부둥키며 생활하는 것이 왠지모르게 조금 두렵기도하다.

하지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목진경



시엠립에서의 5개월이 끝나간다.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5개월은 무엇을 하기에, 생활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기이다. 벌써 4개월이 지났고 한달 후면 한국에 가야 한다.

매일 센터를 출근하면서 답답하고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매순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다. 밥퍼를 하면서, 빵퍼를 하면서, 아이들과 쌀라아피를 하면서, 크페르어 수업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다.

베트남 비자트립을 하면서 버스를 너무 오래 타서 그런지 몸이 아팠다. 한국을 떠나고 거의 처음 아픈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호치민에서 아프면서 서울 생각보다도 시엠립 생각이 더 많이 났다. 쌀라아피 같이 하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밥퍼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더 이상하게도 시엠립으로 돌아오면서 몸이 회복되었다. 결국 시엠립에 도착하고 나서는 센터를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미 시엠립은 내 삶의 터전이 된 것 같다. 이미 너무 익숙한 곳이 되었다.

시엠립에 돌아오니 너무 고맙게도 쌀라아피하는 아이들이 반가워해주었다. 베트남에 가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아팠다는 말밖에 못했지만, 반가워하고 그림을 그려 선물로 주는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요새는 매일 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나 싶기도 하지만, 뒤늦게 말하고 떠나는 것보다는 미리 인지하게 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싫어서이다.

이제 홈스테이만 하면 거의 모든 계획된 일이 끝난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잘 있다 가고 싶다. 한국에 가서 후회하며 이 곳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백인준



솔직히, 별로 안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고 가야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재미없는 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저는 '솔직해 지기 위해' 라온아띠에 지원했습니다. 아서야 할 것은 '저의 솔직'은 '사전의 솔직'과 다르다는 겁니다. 저의 '솔직'은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 중 하나인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주목표로 이 캄보디아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찾기보다 저절로 생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외로움보단 고독에 더 가까우니까요.

그 생각을 할 때 즈음, 무려 1년 전에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생각나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며, 혼자 있음을 즐길 줄 알되 혼자 있음을 지양'하라고 써져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있음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고독이라고 하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충분히 고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음을 지양하기 힘듭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부터 충분히 고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일수도 있지요.

항상 떠나는 것을 좋아했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산책이나 여행을 다니고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앞서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또 한 번 떠나볼까 합니다. 라온아띠 활동이 끝나면 몇 권의 책을 들고 워킹홀리데이를 빌미로 한 성찰 여행을 떠나려합니다. 또, 6개월이요.

장은지

라운아띠, 나에겐 듣기만해도 벅찬 단어이다. 물론 지금도 내가 라운아띠로써 이곳에 파견되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꿈만 같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이고 흔치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리라 다짐했건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후회투성이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되고, 상처주지 않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가끔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른 것들에 대해 관대하지 못했던 나를 그토록 질책하던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에서야 이러한 것들이 표면 위에 떠오른다. 고백하건데,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이곳에 오면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넘쳐나고 에너지가 솟을 것만 같았지만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미리 내가 나를 그 틀 안에 가둔 것이다. 그 틀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살다보면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듯이 하루하루가 달라서 세상은 더 아름다운 법이다. 허나, 내가 만든 세상은 무조건 해가 뜨는 날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었다. 그러한 큰 오류로 인하여 나 혼자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살던 곳을 벗어나 특별히 이곳에 왔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살러 온 것이라고, 세상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고, 세상 어딜 가나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이곳에 온지 4개월이 훌쩍 지나있었고, 소위 말하는 ‘현지에서 적응할만한 썸’이 되자 곧 떠남을 준비하는 때가 온 것이다. 어찌지, 5개월은 너무 짧다. 현지사람들과 이제야 조금 소통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겨우 아이들을 긴장 없이 마주할 수 있는데, 이제야 혼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조금해지고 답답해진다. 시간은 한정적인데 나누고 싶은 건 많고, 끝이 보이니 더 아쉬운 것들이 많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앞으로 차차 나누는 걸로! (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과 행동에서도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돌아가면 귀국 단원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다. 이 곳에 오기 전 서먹서먹했던 귀국 단원들과의 만남들이 생각나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돌아오면 할 말이 넘쳐날 거야.”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